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조 옹 환

조선신문 편집부국장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난 86년 1월부터 출입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 협회문을 처음 들어설 때만해도 1백만호가 넘던 한우사육농가는 현재 50만호로 4만3천여 호였던 낙농가구수도 2만1천여호로 11년만에 절반이하로 줄었다.

이 기간중 협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타 단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그 활동사항을 짚는 지면에 모두 열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순간에도 전국 소사육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각도 지회 및 낙우회, 이나라 낙농육우산업 발전에 건인차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터진 고름우유 논쟁사건과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관련 방송사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업체의 광고도 중단토록 촉구했으며 소비자를 방문, 국내낙농이 처한 실상을 주지 시켰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와 각종 언론을 통해 실추된 우유의 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섰으며 더좋은 우유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와 강습회를 개최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이원화 되어있는 농축산업 가공업무는 수급과 연계, 농림부로 반드시 일원화돼야 옳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에 건의 했으며 전단을 제작해 관계요로에 배부했다. 미국의 선통관 후검사 압력에 대한 철회 활동을 하고 무분별한 육류등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검사와 검역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이점을 강력히 건의한것도 낙농육우협회의 공적이다.

배합사료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전면 적용되도록 입장을 서고, 착유기등 축산기자재 5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법개정에 힘을 발휘한 것도 낙농육우협회다.

수입사료 및 사료종자에 대한 관세를 무세 또는 세율인하 조치를 하고, 농기수취원유가격을 세차례에 걸쳐 현실화 시켜 온데다 낙농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낙농기술 강습회 등도 돋보이는 협회의 활동. 특히 광화문 앞을 비롯 여의도와 과천등지에서 전국규모 낙농육우농가 결의대회를 수십차례 주최, 낙농육우농가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힘을 결집시켜온 단체라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년들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모순된 법과 제도개선이 급선무인점을 중시, 이에따른 활동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료곡물의 유통자유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농가가 자유자재로 자가배합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사료관리법을 개정시키는 작업과 낙농가들이 그동안 염원해 온 낙농진흥법을 올해는 반드시 개정되도록 힘찬 활동을 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앞으로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보호와 관련농가의 요구와 주장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앞장서 나가야만 한다.

특히 전국의 한육우사육농가 대비 회원가입율이 1%도 안되고 있는점을 감안, 한육우사육농가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한육우사육농가들이 협회에 적극 참여토록 길을 닦는데 매진해 나가야 하겠다. (㊦)